

순천시 '대한민국 정원산업박람회' 열린다



2023 대한민국 정원산업박람회

2023 KOREA GARDEN INDUSTRY EXPO in SUNCHEON

2023순천만국제정원박람회로 정원 도시의 이정표를 제시하고 있는 순천에서 '대한민국 정원산업박람회'가 열린다.

순천시는 다음 달 2~7일 7일간 순천만가든마켓에서 '2023 대한민국 정원산업박람회'가 열린다고 29일 밝혔다.

박람회는 산림청과 전남도가 주최하고 순천시가 주관한다. '정원, 대한민국의 미래를 꿈꾸다'를 주제로 다양한 전시와 체험이 진행된다.

시, 내달 2~7일 순천만가든마켓...오천그린광장서 개막식

'정원, 대한민국 미래를 꿈꾸다' 주제 전시·공연·체험 등

박람회가 열리는 순천만가든마켓에서 걸어서 10분 거리에는 2023순천만국제정원박람회가 열리는 순천만국가정원이 있다.

정원산업박람회 개막식은 오는 6월2일 오후 7시 오천그린광장에서 열린다.

개막식 공연에서는 요요미, 에일리, 다비치, 신유 등이 무대에 오르고, 오페라 갈라쇼, 가드닝 패션쇼 등이 진행된다.

정원산업박람회에서는 고부가가치 정원산업 표본을 제시하고 정원문화 확산과 정원산업 육성을 위한 다양한 행사가 펼쳐진다.

정원산업전에서는 정원식물과 정원물품을 판매한다. 박람회 홈페이지(2023kgif.kr)에서는 온라인 정원산업전도 진행하고 있다.

'정원, 옛것에 스며들다'라는 주제로 정원이 조성한 '코리아 가든쇼'도 마련된다.

토피어리 정원과 테라스 정원, 반려식물 꾸러미 등 다양한 볼거리가 행사장 곳곳을 채운다.

박람회 방문객들은 다육식물 정원, 컵 화분, 자연물 공예 등을 체험할 수 있다.

행사 기간 길거리 공연과 마술 공연, 현악 공연 등 상설 공연을 기획해 방문객을 맞을 계획이다.

노관규 순천시장은 "정원산업박람회를 통해 정원문화의 가치를 널리 알리고 정원산업의 지속 가능한 성장을 도모하고자 한다"며 "대한민국의 미래를 위한 정원산업의 중요성을 함께 공유하며 발전시키기 위해 많은 관심과 참여를 바란다"고 말했다.

순천=김은중 기자 ejkim@kwangju.co.kr

순천시, 청년 위한 '천(天)개의 아이디어' 모집

'청년정책114' 게시판 통해

순천시가 행복한 청년의 삶을 만들기 위한 청년정책 수립을 위해 '천(天)개의 아이디어'를 받는다.

천(天)개의 아이디어는 '순천(順天) 청년을 위한 정책 제안'과 '1000개의 아이디어를 모은다'는 중의적인 의미를 담고 있다.

청년 특화 정책제안 전용 창구로서, 청년이 느끼는 불편함을 해소할 수 있는 간단한 아이디어부터 구체적인 해결 방안을 제시하는 정책 제안까지 자유롭게 이야기할 수 있는 공간이다.

특히 형식·방법 등에 구애받지 않고 자유롭게 의견을 제시할 수 있도록 기존 국민신문고 등 시정 전반의 정책 제안 창구와는 차별된다.

참여 방법은 지난 1일에 오픈한 순천시 온라인 청년통합플랫폼 '청년정책114'의 '천(天)개의 아이디어' 게시판을 통해 누구나 아이디어를 제안할 수 있다.

순천시는 오는 6월 중 아이디어 게시자를 대상으로 특별 이벤트도 진행할 예정이다.

또 모집된 아이디어는 1845순천청년인재플랫폼 등 각종 센터로 구성된 청년정책선진단의 정책 선호도 조사를 거쳐 해당 부서가 실행 가능성을 검토하고 구체적인 계획을 수립한 후 정책에 반영할 계획이다.

순천시 관계자는 "천(天)개의 아이디어가 청년의 시정 참여 기회 제공에서 더 나아가 청년 참여 문화가 활성화되기를 바란다"면서 "청년의 욕구와 참신함이 더해진 창의적이고 실효성 있는 청년정책 발굴로 이어지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순천시 관계자는 "천(天)개의 아이디어가 청년의 시정 참여 기회 제공에서 더 나아가 청년 참여 문화가 활성화되기를 바란다"면서 "청년의 욕구와 참신함이 더해진 창의적이고 실효성 있는 청년정책 발굴로 이어지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순천=김은중 기자 ejkim@kwangju.co.kr

광양경제청, 中 칭다오·항저우 투자유치 활동

소비재·콜드체인 물류 분야 등 잠재투자기업 공동 발굴 협력

광양만권경제자유구역청(청장 송상락·이하 광양경제청)은 지난 22일부터 26일까지 5일간의 일정으로 중국의 국제적 항만 및 인공지능 산업의 핵심 지역인 칭다오(青島)와 항저우(杭州)를 방문해 소비재·콜드체인 물류 및 ESS저장장치 분야 투자유치활동을 전개했다.

이번 중국 투자유치 활동은 여수광양항 합동마케팅 사업의 일환으로 광양만권경제자유구역청·여수광양항만공사가 공동으로 광양항·광양항배후단지 및 GFEZ 산업단지를 홍보하고 이를 통해 중국지역 투자기업 발굴을 위해 추진했다.

칭다오에서는 중국 농식품유통공사(AT)와 간담회를 통해 한국에서 중국으로 수출되는 식품 및 투자동향을 청취한 후 광양항을 통한 수출입 물동량 창출을 위한 잠재투자기업 공동 발굴에 협력하기로 했다.

이어 광양항에 입주한 분유기업(HAM)의 성공 사례 발표를 통해 중국의 식품기업 M사(식품첨가제), J사(치즈가공), 콜드체인 물류기업 및 소비재 기업 등을 대상으로 투자 설명회를 진행해 광양만권 투자환경과 광양항 수출입 이점 등을 안내했다.

세계 8위 항만인 칭다오항만그룹 방문에서는 관계자 면담을 통해 칭다오항 물동량 현황 및 주요업무에 대한 설명을 듣고 광양항의 중국 내 홍보방안 및 협력방안 등에 대해 논의했고, 특히 항만자동화 테스트베드 구축사업의 성공을 위해 안전무인자동화터미널의 선도항만인 칭다오항의 자동화시스템 구축 및 운영 관련사항에 대해 질의응답 시간을 가졌다.



광양경제청 투자유치팀이 항저우 중국국제에너지저장장치 포럼 참석에 앞서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광양경제청 제공)

조선택기업협회 기업인들과 간담회를 통해 광양만권 홍보와 투자상담도 진행했다.

항저우에서는 중국국제에너지저장장치 포럼에 참석해 신에너지 시스템 및 에너지 저장산업 발전 방향 및 신제품 발표 등을 청취하고 관련 중국 배터리 제조기업인 EVE 및 ESS저장장치 생산기업 양광전원 등 기업 관계자 면담을 통해 광양만권 이차전지 클러스터 현황을 설명했다.

또 한중ESS산업 국제협력 포럼에서 GFEZ·광양항 투자환경 및 인센티브 소개, 한중 협력사업 모

델을 발표했으며 ESS관련 장비를 생산·수출하는 기업 등을 대상으로 투자상담을 진행해 한국의 FTA 플랫폼과 경제자유구역청의 친기업 정책 등을 설명해 해외로 진출하는 투자의 최적지임을 강조했다.

광양경제청 관계자는 "중국 투자유치활동으로 소비재 및 ESS 관련 분야에서 중국기업의 광양만권 투자를 위해 투자이행기업을 초청하고 중국화학 및 물리전원 협회와 지속적인 네트워크를 통해 투자유치까지 성공적으로 이루어지도록 최선을 다해 나갈 계획이다"고 밝혔다.

광양=김대수 기자 kds@kwangju.co.kr



고흥군 '차범근 축구교실' 수업 장면.

고흥군 차범근축구교실 연다

초등생 85명 연습...유소년 축구 선진지 초석 다져
고흥 거주 차범근 감독이 직접 학생들 지도할 계획

고흥군은 30일부터 고흥군 생활체육공원 구장에서 전국 기초차지단체 가운데 처음으로 '차범근축구교실'이 운영된다고 밝혔다.

고흥군에 따르면 고흥군 차범근축구교실은 지난 25일 창단식을 갖고 초등학생 85명을 선발했다.

고흥군 차범근축구교실은 고흥지역 학생뿐만 아니라 보성, 순천, 여수 등 인근지역 학생들까지 선발했다. 전남 동부 지역 유소년축구의 선진지로서 초석을 다지기 시작했다.

고흥군은 초등학교 1·2·3학년으로 구성된 학년별 팀과 여학생으로 이뤄진 여학생 팀으로 총 4팀을 편성했다. SNS 오픈 채팅을 통해 실시간으로 학부모와 소통해 축구교실 일정, 개강 시간표 등을 사전 안내해 참가 학생의 불편함을 최소화했다.

이번 개강 행사에서는 서울 차범근축구교실의 전문 수석코치 4명과 고흥군 체육회 지도자 4명이 합동으로 학생들을 지도하며, 고흥에 거주 중인 차범근 전 국가대표 감독이 직접 축구교실을 방문해 지도할 계획이다.

한편 고흥군 차범근축구교실은 개강 행사를 시작으로 혹서기인 7·8월을 제외하고 매주 화요일과 목요일에 2팀씩 60분간 수업을 하게 되며, 11월까지 총 16회의 수업을 통해 유럽식 유소년 프로그램을 수행할 예정이다.

11월에는 참가학생팀으로 구성된 고흥군 대표팀과 타시군 대표팀 간의 유소년 축구대회가 고흥에서 개최될 예정이다.

고흥=주각중 기자 gjju@kwangju.co.kr

고흥군 항공교통 관광 상용화 연구용역 착수

관광노선 코스 분석·예비항로 설계
국내 유일 실증 인프라 활용
정부 시범사업 선정 대비

고흥군이 한국형 도심항공교통 그랜드챌린지 사업(K-UAM GC 1) 국내 유일의 개발지 실증지역에 이어 관광 분야 UAM 상용화를 선점하기 위해 본격 나섰다.

고흥군은 관광 분야 도심항공교통(UAM) 상용화 선점을 위해 '고흥형 UAM 관광 상용화 예비항로 설계 연구용역'을 착수했다고 밝혔다.

내년 4월까지 진행되는 이번 용역은 고흥군, 전남도를 비롯해 여수시, 신안군이 공동 참여하고, 대한항공과 PNU드론, 대우건설 등이 수행기관으로 참여한다.

용역 수행기관에서는 중대형 드론을 활용해 UAM 관광 상용화를 위한 예비항로 설계 및 항로 적합도 실증, UAM 이착륙을 위한 배터리포트 최적지 분석, 기상 및 전파·통신환경 분석 등을 종합적으로 실시할 예정이다.

이 연구용역은 2025년 도심항공교통 상용화를 위한 정부 정책 기조에 발맞춰 국토부의 UAM 실증 및 상용화 시범사업에 대비하고 UAM 산업 기반 구축을 위한 기초자료로 활용하기 위해 추진된다.

전국 유일할 도심항공교통 실증기반 시설을 갖춘 고흥군은 올해 8월부터 내년 12월까지 현대자동차, 대한항공, 한화 등 12개 컨소시엄 기업이 참여한 가운데 1단계 실증사업을 진행할 계획이다. 1단계를 통과한 컨소시엄 기업들은 수도권 중심으로 2단계 실증사업을 진행한다.

공영민 고흥군수는 "천혜의 자연경관을 가진 지



유무인 겸용 자율비행 개인항공기 모습.

붕없는 미술관 고흥에서 UAM을 타고 관광하는 모습이 더 이상 영화 속 얘기가 아니다"면서 "UAM(도심항공교통) 실증지역에 이어 관광 상용화까지 선점하는 지역이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고흥=주각중 기자 gjju@kwangju.co.kr

여수시, 'Oh! 묘(卯)한 도서관 투어' 운영

6~10월 시립도서관 4곳·역사 유적 투어 프로그램 운영

여수시가 6월부터 10월까지 총 10회에 걸쳐 도서관 투어 프로그램 'Oh! 묘(卯)한 도서관 투어'를 운영한다.

이번 투어는 여수시립도서관 4개관(이순신·현암·환경·울촌도서관)과 주변 명소인 여문공원, 울촌장도공원, 충민사를 투어 장소로 추가해 다양한 체험 코스를 운영하는 프로그램이다.

투어 코스는 연령대별 총 4개 코스로 운영된다. 어린이 대상으로는 A코스 이순신·울촌 도서관 견학과 B코스 이순신·환경 도서관 견학 및 여문공원에서 추억의 놀이 놀이가 있다.

중학생부터는 일반 A코스 이순신·울촌 도서관 견학 및 임진왜란 장도해전 슬리퍼전시 울촌장도공원 둘러보기와 이순신·현암 도서관 견학 및 충무공 유적지인 충민사 방문하기가 있다.

이번 프로그램은 6월13일부터 10월24일까지 매주 1회씩 총 10회 운영되며, 회당 25명 이내로 기한 및 단체가 참가할 수 있다.

여수시 관계자는 "기존 도서관 투어의 지루함을 줄이고자 도서관 주변 힐링스팟을 추가해 차별성을 강화했다"며 "도서관이 책만 읽는 공간이 아니라 도서관 주변 명소와 어우러져 힐링과 심터로서의 공간이 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여수=김창화 기자 동부취재본부장 chkim@kwangju.co.kr

구례군, 마을세무사 선정 무료 상담

취약계층·영세 사업자 등에

구례군은 마을세무사를 선정해 무료 세무 상담을 벌이고 있다고 29일 밝혔다.

마을세무사는 지역 취약계층과 영세 사업자, 전통시장 상인 등에게 무료로 세무 상담을 하고 있다.

구례군은 일제동 세무사(다인회계사무소)를 마을세무사로 위촉했다.

지방세와 국세 등 세금 전반에 대한 상담을 받을 수 있다. 전화, 팩스, 전자 우편 등으로도 상담을 진행한다.

또 경제적 사정으로 세무 대리인을 선임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전남도 '선정대리인' 제도를 활용할 수 있다.

전남도가 선정한 대리인이 납세자를 위해 무료로 지방세 불복 청구 업무를 대행하는 제도이다.

구례=이진택 기자 lit@kwangju.co.kr

지방세 불복 청구서가 접수된 경우 업무 담당자가 선정대리인 지원 대상 요건을 검토해 안내하고, 전남도가 지정한 선정대리인이 불복 업무를 수행하게 된다. 법인이 아닌 개인만 신청할 수 있다.

자세한 내용은 구례군청 재무과(061-780-2276)로 문의하면 된다.

구례군 관계자는 "앞으로도 많은 군민이 복잡한 세무 문제를 쉽고 신속하게 해결할 수 있도록 다양한 납세자 편의 제도를 홍보하고 운영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구례=이진택 기자 lit@kwangju.co.kr

보성군 조성면 9개 마을, 대문 명패 만들기 참여

보성군은 대문 명패 만들기에 올해 조성면 9개 마을이 참여한다고 29일 밝혔다.

대문 명패 만들기에 지난해 대흥마을 등 4개 마을 200여구가 참여했으며, 올해는 9개 마을로 확대 추진한다.

이 사업은 전남도가 추진하는 '청정전남 으뜸 마을 만들기' 사업의 하나로 진행되고 있다.

보성군은 대문 명패 만들기를 읍·면·우·시책

으로 선정하고 군 시책사업인 보성 600사업과 연계해 모든 읍·면으로 확대 추진할 방침이다.

서진석 보성군 조성면장은 "이번 사업은 주민 호응이 아주 좋다"며 "다른 지역에 있는 자녀들과 향우로부터 가족을 세심하게 챙기는 것에 대한 감사 전화도 많이 받고 있어 보람을 느낀다"고 말했다.

보성=김용백 기자 kyb@kwangju.co.kr